



쓰루미 국제교류라운지 주요 상담 내용

쓰루미 국제교류라운지는 지역 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하면서 곤란한 점, 궁금한 점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. 창구 직원이 여러분의 모국어로 쉽게 설명합니다. 작년에는 1746건 이상의 상담이 있었습니다. 그 중 자주 있었던 [상담 내용]을 소개합니다.



<통역/번역 상담>

어린이집, 학교, 구청에서 온 통지서 번역
일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한 통역
학교, 구청에서의 통역



- 일본어 교실 소개(어린이 반/성인 반)
- 어린이를 위한 학습 지원 소개



<라운지 관련 문의>

월요일~토요일 9:00~21:00

일요일 · 공휴일 9:00~17:00

매월 셋째 수요일은 휴관일

12/29~1/4까지는 휴관



<生活についての相談>

- 전기, 가스, 수도 등 신청
 - 관공서 및 학교 관련 애로 사항 상담
- 비자, 재류카드, 여권 갱신,
구청 서류 기입 방법



<자원봉사 관련 문의>

(예)

- 통역이 필요
- 통역 자원 봉사자가 되고 싶다.

쓰루미 국제교류라운지에서는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어려운 점이나 모르는 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하러 오세요. 전화 상담도 대응합니다.

URL <https://www.tsurumilounge.com> Tel.045-511-5311

편집 · 발행: 쓰루미 국제교류라운지 정보부회 URL <https://www.tsurumilounge.com>

요코하마시 쓰루미구 쓰루미추오1-31-2 전화 045-511-5311 팩스 045-511-5312

이노세 아사코, 이노우에 아이코, 나가누마 미츠코, 이가 구미코, 오나가 노에미

번역: 나가이 미하루, 신수정, 아베 가요코, 이케하라 루미코, 소 고코, 구엔 투안 기아

[특집]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쓰루미구청 창구는 여기!

이사를 했을 때, 아이를 맡기고 싶을 때, 돈이 없어 생활이 어려울 때,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싶을 때 등 어디에 상담해야 할지 몰라 곤란하지 않으신가요?

쓰루미구청에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. 일단 한 번 방문해 보세요.

주요 상담 (예)	장소	부서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느 창구에 상담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요코하마시의 시책에 대해 알고 싶다,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 이사를 할 때(전입, 전출) 	1층 엘리베이터 옆	区政推進課 (구세스이신카) 広報相談係 (고호소단카카리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호적 절차(출생, 결혼, 이혼, 사망 등) 마이넘버카드 신청 및 변경 절차 	2층 1·3·4·10번	戸籍課 (고세키카)
예방접종 관련	2층12번	福祉保健課 (후쿠시호켄카)
지역 내의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알고 싶을 때	2층	つるみ区民活動センター (쓰루미주민 가쓰도센타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노인 복지 서비스 관련 장애인 지원 관련 	3층1·3번	高齢・障害支援課 (고레·쇼가이시엔카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신했을 때 · 육아 관련 상담 아이를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보육 등에 맡기고 싶을 때 	3층 4번	こども家庭支援課 (고도모카테시엔카)
돈이 없어 생활이 힘들 때	3층 9·10번	生活支援課 (세카쓰시엔카)
세금 관련	4층	税務課 (제무카)
지역 관련 사항 (주민자치회 반사회, 상가, 쓰레기, 이용시설, 축제 등)	5층1·2번	地域振興課 (지이키신코카)
다문화공생 관련 등	5층 3번	区政推進課 (구세스이신카)
방재 관련, 선거 관련 등	5층 4·5번	総務課 (소무카)

유치원/학교 입학 축하는 '세키한'으로!



일본에서 유치원이나 학교 입학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먹
는 '세키한'은 팥을 삶아 쌀과 함께 지어 먹는 밥입니다.

전기밥솥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'세키한'으로 아이
의 첫 출발을 축하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?

만드는 법은 여기 ↓

<https://www.kurashiru.com/recipes/e571f3e0-dc6a-40ac-b2a0-bfd78314e22e>

삶은 팥 통조림을 이용하면 더욱
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.



'란도세루(등에 매는 초등학교생 책가방)'의 역사

— '일본'에 대해 더 알아보아요 —

일본의 4월은 입학의 계절.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 대부분은 '란도세루'를 구입합니다. 일
본 초등학생들은 책가방으로 '란도세루'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
니다.

왜 일본에서는 '란도세루'를 사용하게 된 것일까요?

에도 시대 말기(1860년경)에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군대용 배낭이 '란도세루'의 시초입니다.
등에 짊어지는 가죽으로 만든 상자모양의 가방으로 네덜란드어로 '란셀'이라고 불렀던 것에서
'란도세루'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.

양손을 사용할 수 있어 안전하고 휴대하기 편리하다는
점 때문에 메이지 시대(1885년경)에는 이 군대용 '배낭'
이 초등학교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.

'학교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'는 이념하에 가류슈인
(도쿄의 사립초등학교) 초등과에서 통학용 가방으로
사용하게 되었고, 그 후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.

지금은 더 가볍고 다양한 색상의 '란도세루'가 판매되고 있습니다.



«참고: 일반사단법인 일본가방협회 란도세루공업회 홈페이지에서 발췌»